

요즘은 담배를 쓰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흡연은 심각할 정도이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담배는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우리 가족중에서는 아버지가 담배를 매일 피우신다. 아버지가 피우시는 담배의 연기로 우리 가족 모두가 안좋은 영향을 받고 있다. 담배는 피우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까지 큰 피해를 준다고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당연한 듯이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 요즘은 담배를 피우는 장소를 따로 설치한 곳이 많지만 이 장소조차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것이 현실이다. 담배를 마약과 같이 피우는 사람들은 비흡연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는 것 같다. 요즘에는 여성의 흡연도 늘고 있다.

여성까지도 공공장소에서 당당히 담배를 피운다. 정말로 담배에 대한 심각성이 느껴진다. 나는 담배를 피우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키고 싶지만, 그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적어도 공공장소에서만큼은 담배를 피우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의견이다. 다른 사람과 자기자신을 위해서라도 담배는 반드시 공공장소에서 피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하나 담배에 대한 광고도 늘고 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외국 담배의 광고까지 늘고 있다. 흡연율을 줄여야할 상황에서 담배의 광고는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담배의 봉투에는 “지나친 흡연은 몸에 해롭다” 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다. 상업성의 광고를 많이 하면서 그러한 문구는 전혀 어울리지 않고 우습다고 생각한다. 상업적인 광고에 의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과 청소년들이 더욱더 늘어난다고 생각한다. 나와 같이 반대 의견이 많다면 담배회사에서는 싫어하겠지만 모두가 담배는 몸에 해로운 것을 안다면 공공장소에서 금지해야만하고 광고도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